

연구실체로서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한국학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연구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도 의논이 분분하다. <출판저널>은 이런 학계의 흐름에 맞춰 두 차례에 걸쳐 '21세기 한국학의 실제'를 연재할 계획이다. 특히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최근 한국학의 정체성에 대한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한국학의 특징과 한계, 발전을 위한 조건' 제하의 글은 국내 한국학 연구의 현주소와 비전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 2회에 걸쳐 원문 그대로 실기로 했다. <편집자 주>

한국과 한국학 '정체성' 과 새로운 방법론 모색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개명도 BK21 · 각종 관련학술행사 등 통해 활발한 논의

지난 2005년은 광복 60돌을 맞는 감격스러운 한 해였다. 이에 맞춰 크고 작은 행사들과 더불어 다양한 학술행사가 줄을 이었다. 특히 한국학 연구는 60돌에 맞아 한국학의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했다.

그 중 두드러진 사건은 지난해 1월 정신문화연구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간판을 바꾼 일이다.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국책 국학연구기관인 정신문화연구원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제2의 탄생을 맞은 것이다.

명칭 변경은 일반인들이 '정신병원'으로 착각하고 전화를 할 정도로 '정신문화'라는 개념이 모호한데다,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인 연구 성향이 비판받아 온 결과였다. 10월에는 '2005 세계한국학자대회'를 주최하는 등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대만의 '대만중앙연구원', 중국의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의 '일본국제문화연구원', 러시아의 '사회과학원'과 같은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시작돼 올 2월에 마무리되는 1단계 '브레인 코리아 21' Brain Korea 21 · BK21 역시 한국학 연구의 디딤돌이 됐다. 인문계로서는 해방 이후 처음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으로 한국학의 기초를 정립하는 등 다양한 학술 성과로 이어졌다.

가령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은 BK21 사업을 통해 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호적자료를 DB화하고, 또 다른 대표적인 기록물인 족보에 IT 기술을 접목하는 등 한국학 기초자료를 축적했고 동아시아학술원 설립(2000년), 동아시아학 협동과정 신설(2002년), 학부내 동아시아학 연계전공 신설(2004년) 등을 통해 베트남 · 몽골 등 해외 한국학 전공 연구진을 유치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 왔다.

이 외에도 올해에는 2005년 2월 한림대 한국학연구소(소

장 한영우)가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회 학술심포지엄을 연 데 이어 지난 12월에만 '아시아 민족문화 진흥방향과 '한' 브랜드화' (한국국학진흥원), '박정희 시대와 한국현대사'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한국학의 정체성 대토론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국내 · 해외 민주화운동과 한국사회 : 사료 그리고 한국학'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등 한국학 관련 토론회가 잇따랐다.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의 경우 같은 제목으로 푸른역사에서 출간되는 등 올해 중으로 지난해 있었던 토론회의 성과가 책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한국학 총서는 선인출판사의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총서' 푸른역사의 '21세기 한국학총서' 서울대학교출판부의 '서울대학교 한국학 연구총서'와 '한국학 모노그래프', 경인문화사의 '경인한국학연구총서', 소명출판의 '연세근대한국학총서' 돌베개의 '돌베개 한국학총서', 경인문화사의 '경인한국학연구총서', 혜안의 '연세국학총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의 '한국문화총서'와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출판하는 영문학술서 시리즈 'Harvard-Ewha Series on Korea' 등이 있다. ■

취재 신동식 기자